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4. 5(일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건설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주종완, 사무관 최현중, 주무관 김장일 • ☎ (044) 201-3504, 3512, 3513
보 도 일 시		2020년 4월 6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6(월) 10:00 이후 보도 가능	

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설업계 특별융자, 출시 보름 만에 8,239개사에 총 1,48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3월 16일부터 실시 중인 특별융자가 출시 15일 만에 **1,485억 원**(건설공제조합 : 1,464건, 552억 원, 전문건설공제조합 : 6,775건, 933억 원)을 지원했다고 밝혔다.
 - 이번 특별융자는 지난달 12일 김현미 장관이 주요 공공기관, 업계 관계자, 건설근로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, 건공 4,800억 원, 전공 2,000억 원(소진 시 1,000억 원 추가) 규모로 **6월 30일까지 무담보 저리(1.5%이내)**로 시행되는 것이다.
 - 공제조합 조사에 따르면 주로 소규모 업체*가 특별융자를 받아 임금지급, 장비·자재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.
- * 건공 : 1,179개사(출자액 3억 미만), 전공 : 5,273개사(출자액 1억 미만)
- 아울러,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양 공제조합에서 「선급금 공동관리제도*」를 완화 적용한 효과도 같은 기간 86건,

273억 원(건공 : 227, 전공 : 46)에 이른다고 밝혔다.

- * (선급금 공동관리)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, 이 과정에서 보증서 발급기관인 공제조합과 약정을 통해 선급금의 일정금액을 건설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

□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“공제조합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, 공사중지·지연에 따른 계약변경 지원과 건설 인력·자재 수급 상황 점검 등 현장관리 강화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이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* (계약변경 지원) 공기,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지침을 시달(2.12, 2.28)하고
 숏공공기관에 적극조치 요청(2.26, 3.6) 및 별도 애로접수 창구설치(3.10)
 → 필요시 계약변경 과정의 이견에 대해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조정 지원

- ** 인력·자재 수급상황 관리를 위한 국장급 점검체계 구성·운영, 표준시장단가 현실화를 통한 시장가격 적기 반영, 사업발주 필요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지연 방지를 위해 분산 개별설명 추진 등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최현중 사무관 (☎044-201-351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